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412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북, '눈' 정찰위성 이어 '주먹' ICBM 능력 과시...美본토 타격권



북한 '화성-18형' 발사 장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연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8일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정상(30~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70

여분간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 군은 비행거리가 1천km라고 설명했으나 최고고도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고고도가 6천km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고각 발사돼 1천km를 비행한 것을 보면 지난 7월 12일 시험발사된 '화성-18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와 최고 고도

와 비행 시간·거리 등이 유사하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월(화성-15형), 3월(화성-17형), 4월(화성-18형), 7월(화성-18형)에 이어 다섯번째다. 북한이 한 해에만 ICBM을 다섯차례 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4월, 7월에 이어 이번에도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쏘면서 신속·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성능을 최종 검증해 내년부터 작전 배치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고각 발사로 최고고도 6천km 이상을 올라가는 ICBM은 정상 각도로 쏘 경우 1만 2천~1만5천km를 비행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작전배치하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세 번째 시도 만에 우주 궤도에 올린 정찰위성이 '눈'이라면 ICBM은 '주먹'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찰위성 성능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눈과 주먹'이 한 세트를 이뤄 공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속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가능성 정찰위성 발사→군사합의 파기→ICBM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은 정찰위성이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지와 미국 본토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달부터 정상임무에 돌입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완성에 매달려 온 북한은 지난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진수했고,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에 이어 11월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사용될 고체연료 엔진시험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남측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기다렸다는 듯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

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연말에 이처럼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방분야 핵심과업 완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격'으로 부각하면서 체제 결속을 노리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GC) 합의 상황에 대한 반발 성격도 커 보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6월을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정했고,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때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 5015)에는 전면전 대비 외에는 핵 보복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핵작전 연습을 토대로 연합사 작계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ICBM 발사가 금명간 실행될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한미일 경보정보 공유 조치에 "위협 천만만 군사적 망동"이라고 경계심을 표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ICBM 등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체제 결속과 내부 성과 선전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역제를 위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도 크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잇따른 '낙서테러' 경복궁 담장 복구, 일주일 이상 걸려

문화재청, 담장 외부에 20여대 CCTV 추가 설치 계획

경복궁 담장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추가로 낙서로 훼손되면서 복구에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왼쪽 부분을 현장 확인한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18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16일부터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장비 등 보존처리 장비와 약품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 기간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훼손된 부분은 기존 훼손된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으로, 훼손 범위는 가로 3m, 높이 2m 규모다. 복구 작업은 약품 등을 이용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뒤 레이저 장비로 표면을 미세하게 태워 남아 있는 흔적들을 최대한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과 함께 경복궁 담장 외부에 2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복궁 내부에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는 200곳에 415개 CCTV가, 외부에는 9곳에 14대가 설치돼 있다. 또 앞으로 이번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했다. 이어 17일 오후 10시20분께 이미 낙서로 훼손된 담장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 조유진 기자

야구공에 넣어 밀반입한 '미친약' 41억원어치...태국인 47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18일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시킨 외국인 노동자 A(35)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하고,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태국 출신인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 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약 '야바'(YABA)를 몰래 숨겨 국내로 보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8만2천정점으로 시가 상당 41억원이다. 이 중 6만7천정(시가 33억원 상당)은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태국어로 야바는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일으키는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이다. 붉은색 알약 형태이며



야구공 안에 들어간 마약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돼 유통된다. 이들은 경북, 경기, 대구, 울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공장 근로자들로 각 지역 중간 판매처들을 거쳐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들로 농촌이나 공단 일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집단으로 투약했으며, 출근 직전이나 근무 중에도 상습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일을 했다. 과거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에 마약을 밀반입하던 수법을 벗어나 야구공 실밥을 일일이 뜯어 해체한 뒤 플라스틱 공 안에 마약을 숨겨 재포장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알렸다. 김기범 경북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태국 현지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로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성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海

KBC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신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海.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플랫폼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

민주, '이낙연 신당' 불가론 확산...“갑자기 신당 얘기하니 황당”

친명계 원외 조직 등 “명분 없는 창당,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100여명 반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단합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이 전 대표의 창당은 당의 단일 대오를 깨는 해당 행위라는 게 창당 불가론의 요지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신당 창당 이유로 꼽지만, 그 책임은 제1야당 대표를 중립적이지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물어야 한다”며 “명분 없는 창당은 이 전 대표의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는 이광재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해 지난 14일 시작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닷새째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며칠 더 서명을 모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창당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창당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

부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통합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라”며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추진은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송원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

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는 위법 소지...엄중 조치”

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했다.

복지부는 종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 의료포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 / 민성호 기자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늘린다...중소병원 필수의료 성과 보상 정부, 지역병원 맞춤형 육성...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정부가 교수 정원 확대, 시설 첨단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의 중소병원에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사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

하는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 전달체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지역 병원 육성방안이 자리 잡도록 수요에 맞게 전국의 병상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권역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간 협진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별로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 측은 한 목소리로 지역 전공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필수요료를 담당할 의사마저 지역과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희생과 헌사로 공백을 메꾸고 있지만 오래 위 섬처럼 위태로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영훈 광주시 부시장도 “비수도권 지역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수련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수련 인프라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복지부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관계가 전혀 아니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노력해야 할 과제인 만큼 끝까지 의료계를 신뢰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권현준 기자

공수처, 특수부 폐지...기존 사건은 신설 수사부서가 담당

수사부 확충·공소부 폐지 감사원·채상병 사건 수사4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없애고 정규 수사 부서를 확충했다.

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대신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공소부가 폐지되면서 이대환 공소부장이 특임 부장을 맡아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도 자동으로 폐지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사실상 하나의 수사 부서로 기능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본이 진행해온 수사는 모두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4부 장도 이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수처는 직제 개편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인사 규칙도 이날 공포됐다.

/ 신재일 기자

Moody's A2

Fitch Ratings A

A.M. Best A+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건설산업의 내일을 연주합니다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공간의 완성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건설에 가장 어울리는 화음, 건설공제조합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노래합니다

The Best Guarantee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박진 “日에 할말 당당히 하는 게 중요...진정성 행동 이어지길”

‘아시아판 나토’엔 “필요하다고 생각안해...검토한적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데 대해 “일본에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떳떳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일 굴종 외교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외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나온 ‘일본에 저자세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에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속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올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돌아보며 “나머지 물결 반에 물이 계속 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먼저 물결 절반을 채웠고 나머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방송에서 “(채워진 계) 보이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

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며 경제·통상 실질적 분야에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사례는 “말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결속이 북중러 밀착을 가속에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결속하는 건 공통 가치에 입각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거고,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양

국적 입장에서 한-러 간에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명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은 최근 북한 등 위협 증대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미 나토와 한국간 실질적 협력관계가 진행되고 있기에 그런 차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차원에서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를 넓게 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더 크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히 아

시아판 나토를 만든다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엔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 관계가 형성돼있어 중국도 나름대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중요하며 시 주석 방한 무산시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자정상회의의 계기에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있고 외교라는 건 상호주의적이기에 그간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으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관련 중국 측이 ‘조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저한테 무슨 조건을 얘기한 건 없다”며 “다만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했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입장에서선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도영 기자



‘난방비 부담’ 기초수급자에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내년 1월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최대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양시설에서 급유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2천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번 겨울철에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 남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다”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 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

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관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펴겠다”고 답했다.

/ 이진욱 기자

정부 “日 물고기 폐사·작업자 피폭, 국민 안전에 영향 없어”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해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이전인 올해 2월에도 일본 니가타현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정어리 집단폐사가 발생한 적이 있고, 같은 원인으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는 미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홋카이도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과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중 폐사가 발생한 7일에 가장 근접한 4~5일 기준 결과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향후 제시하게 될 공식적인 원인이 무엇이든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친다”며 “일본에서의 물고기 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 폐로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염수 누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할지는 더 지켜보고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차현우 기자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신속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형 청정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 "총선서 30석 얻겠다"

"2027년 집권 도전, 2032년까지 개헌... 내각책임제 도입해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 공동대표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

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약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청년주책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공공영제 등을 제안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공동대표는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을 기치로 들고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 대표를 맡게 됐다. 앞서 조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금 대표와 류 의원은 지난 11일 새로운선택이 추진할 젠더(성) 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 중이고,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은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 최해성 기자



경찰에서 민주당으로

野 3호 영입 '경찰국 반대' 류삼영 "무도한 정권, 경찰 지켜야"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3호 영입 인재'로 투입된다.

류 전 총경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및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형령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비례대표 및 지역구 등 출마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바가 없고 결정된 바도 없고 결심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법률상 면책 특권이 있는 거 말고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집단은, 특권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상 아주 중요한 원리"라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으로 잘하셨다"고 평가했다.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4호 영입 인재는 '청년'이라고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이 전했다.

/ 오민주 기자

나경원 "우리 모두 내려놓고 반성하며 생동감 있는 정당"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추진 중인 당내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내려놓고, 반성하며 생동감 있는 정당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대위와 관련한 이런저런 내 생각이 있지만 말을 아끼고 싶다"며 이처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던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연계로부터 집중적인 압박과 견제를 받아 결국 불출마를 택했다.

4선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나 전 의

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지난 14일 당이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남부지방법원에 '페스트트랙' 재판관을 받으러 오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치열함으로 정권교체는 이뤄졌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라는 소망의 하루하루였던 기억"이라고 적었다.

/ 황순길 기자

이준석·양향자 공개대담... "동지적 관계 가능" "정치혁신 동지"

유튜브서 3시간 30분 토론...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시사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 정치세력 중 하나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 대표(광주 서구을)가 공개 대담을 하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와 양 대표는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출연, 약 3시간 반 동안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삶의 스토리가 신화에 가깝다"며 "삼성 이준희 회장과 권오연 회장, 진대제·황창규 사

장 등 영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 의회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함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미래 로드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달 7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을 초청해 공개 대담을 한 바 있다.

/ 객준혁 기자

당정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잼버리처럼은 안돼...만반 준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협의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홍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회 개막까지 30여일 남은 만큼 급격한 날씨 변화 등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꼼꼼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안전사고와 겨울철 호흡기 질환 확산 등 보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점검과 기민한 현장 대처가 필요하다"며 "소위 '바가지요금'이란 것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번 잼버리 대회가 조직위원회가 전북도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국제스포츠 행사가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결국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 대회를 보장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

문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그동안 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다"며 "그런 역량과 영광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에서 재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 올림픽이 평창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며 "성공적인 청소년올림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교통 문제·제설 대책·한파 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며 "관중 2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경기) 인터넷 예매율이 53.4%다. 대회를 앞두고(목표) 채워겠다"고 다짐했다.

/ 최준용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를 만나면

신규·휴면 손님 대상 3개월간 300만원까지

7% (세전)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기간: 2023년 10월 13일(금)~12월 31일(일)
- 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면서 본 광고의 이벤트 참여 QR코드로 비대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손님

1. 신규·휴면 최초 신규 손님(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회 참여 가능)
2. 이벤트 신청 전일 기준 3개월간 하나증권 전고가 0원 손님

하나가 드리는 이벤트 혜택

하나,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들, 국내/해외 주식거래 우대수수료 적용 셋, 애플 소수점주식 1천원상당 증정

문의: 하나증권 손님케어센터 1588-3111

이벤트 참여 QR코드

하나증권

[이벤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하나증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광고의 QR 코드가 아닌 타 매체를 통해 게재되었을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개인신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외국인 제외)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SMS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신 손님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상이하여 본인확인 없이 이력이나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 등에는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MA 일괄매매 RP에 투자합니다. *RP 수익률은 일평균 시 회사 고지하는 익일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 적용기간(연 7.0%), 세전, 계좌개설일로부터 3개월 종료 시까지는 증권시장에 고지된 수익률(2023.09.10 기준 연 3.15%, 향후 변동 가능)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141639%,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0.25%, 중국 0.30%, 홍콩과 기타 지정한 시장은 하루 평균 공매시 등을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매매 시 동양(0.033 US\$), 메도 시(0.0009%), 중국주식 매매 시(0.0094%), 메도 시(0.0041%) 수수료가 부과되며, 기타 지정한 시장은 하루 평균 공매시 등을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주문을 수행하여 집행하며 여러 투자자의 매매 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 가격 혹은 실제 체결되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수 단위 주문은 더 증권사로 대량으로 불발할 수 있습니다. *소수 단위 보유분에 대해서는 1주 단위 제외(대환)가 가능합니다. *한국증권투자협회 신사업 제23-0378(2023.10.16~2023.12.31) *하나증권 증권사간 상품결제제23-1949(2023.10.18~2023.12.31)

목포해경, '전남 서부권 마약 공급책' 베트남인 구속

일용직 노동자 위장해 18개월간 도주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안경찰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상 B씨에게 엑스터시 200정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목포해경은 A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해경의 추적을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쓰며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



마약 공급책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은신처 수색하는 해경

돌았다.

A씨 18개월에 걸친 도주 생활을 이어간 A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모처에서 지난 6

일 해경에 체포됐다.

A씨를 붙잡은 목포해경은 외사 분야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약 공급책 검거 성과를 거뒀다. 체포 당시 A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2.17g(약 72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포해경은 엑스터시, 케타민, 아바 등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잇달아 검거하기도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조직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두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기사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씨를 중간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

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계입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기자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 용의자 하루 만에 50대 검거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강도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강도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를 쫓았다.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썼던 A씨는 이후 옷을 갈아입으며 거리 CCTV 사각지대를 피해 다녔지만,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그의 자택은 범행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최준용 기자

최상목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경험을 계기로 민생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과 만난 적 있느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농단 사건엔 "수사·재판 지켜보며 많은 충격"

의 질의에는 "별도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제 개인의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선 "경제수석으로서부터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추어 한-중 문화협력 MOU를 체결할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들이 만들기로 했고 그 설립작업을 전경련이 하기로 했으니 실무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재단설립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 진행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선 "실무회의에서는 통상적인 기본재산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경제수석이 설립 초기 탄력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운영재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이런 의견도 전경련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전경련이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영혼 없는 엘리트 관료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당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

를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좌우명으로는 "심광체반[心廣體반(月+半)]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심광체반은 '대학'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부끄러움이 없으면 마음이 관대해지니 몸도 반듯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7년 재산등록 이후 5년 만에 2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선 "재산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평가액"이라며 "그 외에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 최근 10년간 외부 직책으로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울산대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배우자에 대해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가족의 사업 여부에 대해선 "장남이 2023년 7월 18일 에비네펀트를 설립했다"고 각각 밝혔다.

/ 한영민 기자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 손현수 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혼을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혼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안세영

서승재

강민혁

김원호

김가은

김혜정

안세영 · 서승재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수상

자랑스러운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입니다

정재욱 허광희 박경훈 최지훈 안윤성 최평강 김병재 이소울 이연우 이유림 유서연 김유정

CJ올리브영에 쿠팡·다이소까지 '화장품 배송' 전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결정된 바 없어...담뱃세 인상 계획 없다”

CJ올리브영에 이어 쿠팡, 다이소까지 '화장품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다.

각 사의 화장품 주력 상품과 배송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을 두고 쿠팡·다이소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J올리브영은 17일 화장품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 드림'의 올해 1~11월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온라인 주문 절반 이상이 일반 택배 배송이 아닌 '오늘 드림'으로 처리된다.

올리브영은 2018년 12월 화장품 업계 최초로 즉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리브영은 고객이 모바일 앱과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주소지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배달 업체에 맡겨 물류센터에서 발송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배송하고, 매장 재고 관리 효과까지 동시에 얻는다. 전국에 올리브영 매장 수는 1천 300개에 육박한다. 판매 제품 중 중소기업의 독립 브랜드, 이른바 '인디 화장품'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같은 날 3시간 이내 도착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의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이 45분으로 집계됐다.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신선 식품만 빠른 배송이 필요할 것이라는 업계 관행을 깨고 화장품에도 즉시 배송을 적용했다”며



올리브영 오늘드림 서비스

“앞으로도 매장 온라인몰을 연계한 '오픈채널' 시너지를 기반으로 배송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이를 위해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물류거점은 2021년 MFC 강남점을 시작으로 서울 지

배송을 시작했다. 기존 로켓배송과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서 직배송하고, 와우멤버스 회원에게는 무료배송·무료반품 혜택을 준다. 로켓배송에는 에스티로더, 맥, 바비브라운, 록시팡, 아베다 등 고급 브랜드가 입점했다.

쿠팡, 명품 화장품 새벽 배송·다이소, 가성비 화장품 익일 배송

역 7개 권역과 경기 2개 권역 등 9곳에 있으며 내년에는 광역시에도 진출한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원하는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는 '오늘드림 픽업' 서비스 이용 건수도 올해 1~11월 120만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이 인디 화장품에 힘을 주는 사이 쿠팡은 고급 정품 화장품 배송에 주력하고 있다.

쿠팡은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올해 7월 열고 화장품 새벽

쿠팡은 해당 브랜드 한국 본사에서 직매입한 100% 정품만 판매하고, 스페셜 패키지 등 고급 포장한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꼽는다.

로켓럭셔리 오픈 당시에는 포장 규격이 한 가지였으나, 최근에 상품 크기에 따라 고급 포장을 달리 해주고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일 로켓럭셔리 비오템과 어반디케이를 입점시키는 등 럭셔리 뷰티 라인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백화점 1층과 면세점에서 판매되던 고급 브랜드 화장품이 온라인으로 판매 무대를 넓혀 채널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가성비 화장품 품목을 점차 늘려온 다이소는 15일 전 품목 익일(다음날) 전국 배송을 선언해 화장품 배송 경쟁에 뛰어 들었다.

다이소의 올해 1~10월 기준 기초·색조 화장품 매출은 작년 대비 180% 증가했다. 다이소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다나한, 클리오, VT코스메틱 등과 협업한 화장품을 5천원 이하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VT코스메틱이 다이소 판매용으로 만든 리드샷 페이스 부스팅 앰플(3천원)이 품절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안성물류센터에서 한진택배에 맡겨 다음날 도착한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한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으로 입지를 굳힌

다이소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화장품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온라인 패션 플랫폼도 화장품 배송 판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의 화장품 전문관 '무신사 뷰티'의 올해 거래액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그재그의 '직책 뷰티', 에이블리의 '에이블리 뷰티'도 입점 화장품 브랜드 및 거래액이 늘고 있다. / 백규영 기자



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는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경제와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

판으로 기업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방문규 장관이 지난 9월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좀 아픈 분야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서는 크게 데미지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세준 기자

내년부터 소주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천247→1천115원

국세청, 소주 기준판매 비율 22.0% 확정...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소주 가격 인상하는 하이트진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드·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

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 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kg당 88만5천 700원, 막걸리는 1kg당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양승민 기자

“막걸리 먹인 감귤·하트 키위”...이마트, 프리미엄 과일 선봬

이마트는 이번 겨울 이색 프리미엄 과일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막걸리를 비료로 먹고 자란 '뽕평화 대상 감귤'을 판매한다.

이 감귤은 수분 흡수를 막고 햇빛을 반사해 당도를 높이는 '타이백 재배'에 막걸리 농법을 결합해 당도를 11~12브릭스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7주간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이다. 당도 기준이 12.5브릭스로 감귤 중 가장 높은 '블로썸 감귤'과 '고당도 감귤'도 1월까지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마트는 또 당도 높은 제주 키위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루비골드 키위'는 레드키위와 골드키위를 접목해 당도를 끌어올렸고, 외관이 하트 모양인 '하트골드 키위'도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다.



일반 그린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희귀 품종인 '에메랄드 키위'는 오프라인 매장 중에는 이마트에서만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달 1~14일 고당도 프리미엄 감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하는 등 당도 높은 과일을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권정석 기자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활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송변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움직이는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오세훈 애정템' 서울 후드티 동났다...서울시 굿즈 인기몰이

'소장각' 픽토그램우산·도넛머그컵도 이틀만에 완판 행렬...“추가 제작”



서울시 굿즈 '서울마이소울' 회색 후드티

서울시가 선보인 '서울마이소울' 굿즈들이 이틀 만에 '완판'되는 등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크리스마스마켓에 문을 연 굿즈샵에서 판매한 후드티와 픽토그램우산, 도넛머그컵이 품절됐다.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가 완료된 인기 제품은 전면 중앙부에 '서울마이소울'의 픽토그램(그림 문자)이 자수로 들어간 회색 후드티였다.

지난 8월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발표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입고 나온 뒤 각종 행사와 일지에서 자주 착용한 것으로, 판매 문의가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광주시-전남도, 민간·군공항 이전 회동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돌파구 마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공항 2차 회담'에서 광주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함으로써 민간·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실태가 어느 정도 풀렸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것은 지난 4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다. 이런 가운데 양 시·도지사가 지난 5월 '1차 공항 회담'에 이어 7개월 만에 열린 '2차 공항 회담'에서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 노력'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공항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차 공항 회담'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협력한다고 합의하면서 민간 공항 이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해 '속 빈 강정 회담'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간 광주시가 군공항을 합평군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군공항 동시 무안 이전을 고수해온 전남도와 갈등 양상도 보였지만, 양 시도지사가 이날 회동에서 '민간·군공항 이전 지역'을 무안으로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지난 13일 무안군 민과 대화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정면 돌파'하는 등 민간·군공항 동시 무안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이날 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시장도 회담에 앞서 무안군민과 대화 당시 김 지사의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도 회담 성과에 내심 기대를 나타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 앞서 "시장과 지사에게 부담감이 적지 않은 회담"이라며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오늘 '빈손 회담'이 되면 시도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양 단체장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송현수 기자

인천~서울 광역버스 운행횟수 늘까...준공영제 내년 7월 도입

기사 처우 개선·서비스질 제고 기대...연 400억 지원은 '부담'

인천시가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착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와 추경 예산 확보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과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가 구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대상은 직행좌석 19개 노선(7개 업체·251대)과 광역급행(M버스) 6개 노선(5개 업체·75대)이다.

직행좌석은 인천 도심과 서울·광명역·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로, 면허권자인 시가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M버스는 면허권자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화와 협의해 지원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절반씩 분담하는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구상 중이다.

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연간 4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돼 현재 광역버스 업체들이 구인난으로 면허대수의 70~80%만 운행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기사 친절도 향상 등 전반적인 교

통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러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가 목표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현재 186개 노선(34개 업체·1천903대)을 운영 중이다.

노선별로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연간 2천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인천~서울 M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도 제도 도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민준 기자

강원도, 필리핀 전세기 단체 관광객 680여명 유치

18일~내년 1월 3일까지 4차례 양양공항 통해 입국



필리핀 팸투어단 환영 행사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필리핀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필리핀 관광객 680여명이 양양공항과 마닐라를 연결하는 전세기를 타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차례

에 걸쳐 입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오전 첫 전세기편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들은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스키 체험을 시작으로 춘천 남이섬, 레고랜드 테마파크, 강릉의 BTS 버스정류장 등을 2박3일 돌아볼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 필리핀 현지지를 찾아 한국관광공사 및 필리핀항공 총판대리점인 락스트레블과 양양공항 무사증 전세기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세기 단체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황순호 기자

LH "성남 신흥3·태평3 순환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신흥3·태평3구역에서 진행 중인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순환 정비는 사업 구역 인근에 마련된 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뒤 정비사업이 끝나면 기존에 거주하던 사업 구역으로 재이주하는 방식이다.

신흥3·태평3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총 6천3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신흥3구역은 사업 면적 15만3천218㎡(4만6천평) 규모에 3천418가구가, 태평3구역의 경우 12만4천989㎡(3만3천평) 규모에 2천847가구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공원 등도 확충돼 주거환경이 획기적



성남 재개발 전후

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025년 말 이들 2곳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1년 준공 및 입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흥3·태평3구역과 함께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 사업 대상 중 하나인 상대원3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단독주택 밀집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삼

여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재정비되고 있다.

특히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이주단지로 제공해 원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원주민 재정착률은 5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인근 지역의 전세난이나 주택 가격 폭등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김민성 기자

푸바오의 겨울 동화가 펼쳐지는 곳

에버랜드 윈터토피아

12.8~3.1

The Giant 바오
12미터 높이의 거대한 보물, 푸바오를 사진 속에 담아보세요!

Live 나비체험관
매일 5천여마리의 아름다운 나비들을 만나보세요!

윈터스파케비
이국적인 노천탕에서 여유롭게 힐링해보세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에서 즐기는 알찬 하루!
캐리비안 베이 이용 손님은 당일 에버랜드를 오후 4시부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1~3/3)
'EVER 2 CAB!' 패키지 구매 손님은 에버랜드 이용 후 당일 캐리비안 베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1~12/31)

EVERLAND RESORT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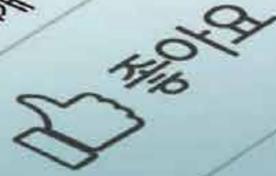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20만원 지원금 혜택

도·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온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월 20만원)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80명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1970년대 선감학원 아동들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안전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문의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

하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넣으면 지원금 20만원의 온전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도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이뤄

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 박민준 기자



경청스타즈

경기청년 100명 해외기업 현장체험 '경청스타즈' 사업 성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7개국, 9개 도시, 35개 기업서 진행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청스타즈(경기청년스타즈)' 1기 사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청스타즈는 19~34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 필리핀 마닐라(13명) ▲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 대만 타이베이(6명) ▲ 인도 뉴델리(6명)·벵갈루루(7명) ▲ 일본 후쿠오카(30명)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6명) 등 7개국, 9개 도시, 35개 기업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했다. 현지 기업방문 체험은 물론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유타)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월드유타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로그램 참가자 이혜민(32)씨는 "식품, 유통, 물류, 반도체, 무역, IT,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험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며 "해외 기업에서 만난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운영한 베트남 호치민 프로그램 참가자 권수정(24)씨는 "베트남 현지기업 체험을 통해 섬유제조업의 생산부터 수출 업무까지 습득하며 유통과 물류에 대해 배우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경청스타즈 2기 사업에서는 참여 인원과 기업 체험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노건우 기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22만명 참여 한 달 새 17만명 증가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 추가됐다.

포항지진법시민대책본부(법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

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소송 대란 발생

늘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분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모성은 법대본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해원 기자

눈썰매에 크리스마스마켓·스노우돔 샷...한강겨울페스타 개막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강공원 겨울축제...독섬·잠원·여의도·망원 등



독섬한강공원 눈썰매장

서울시는 한강에서 열리는 겨울축제를 아우르는 '한강겨울페스타'를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연다고 17일 밝혔다.

22~31일 독섬한강공원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22일 오후 6시 해군 군악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마켓은 크리스마스 불거리로 가득 채운 포토존 '메리 빌리지'와 크리스마스 캔들, 오르골,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메리마켓', 겨울철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푸드라운지'로 구성됐다.

썬더 검용의 이색 포토존 '스노우 돔'에선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2m 높이의 투명 스노우 돔 5개를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벽난로, 북주머니 등의 소품으로 실재를 꾸며 추위를 녹이면서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같은 기간 광나루·난지·여의도·강서한강공원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한강'을 주제로 '한강페스티벌 겨울'이 열린다.

23·25·30·31일 4일간 여의도한강공원

에선 아라감포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배를 타고 한강 야경과 불꽃놀이를 즐기는 '한강음악불꽃크루즈'를 경험할 수 있다.

22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독섬·잠원·여의도한강공원에서 눈썰매장이 운영된다.

눈썰매장은 휴무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독섬한강공원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기간엔 오후 8시까지 눈썰매를 탈 수 있다.

빙어 잡기·풍선 터뜨리기·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미니 바이킹·유로벤치·타가다 등 놀이기구도 마련된다. 분식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도 들어선다.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6천원이다. 체험 행사와 놀이기구는 각각 5천~6천원의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시는 눈썰매장의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독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사전에 모집한

지체·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데이' 행사를 연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눈썰매장 리프트를 제작·설치하고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경계턱에 진입 받판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야외 수영장, 캠핑장 등 한강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안내센터에선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여행'을 주제로 한 '기차역 플랫폼 전시'가 열린다.

안내센터 1층에 설치된 4.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및 산타 인형을 비롯해 증기기관차 디오라마 전시·그림책 큐레이션 등을 통해 동화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 지역 내 어린이 50명을 초대해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도 한다. 행사는 마술 쇼·캐럴 공연·동화 구연·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과 눈썰매장, 포토존 등 겨울축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더욱 신나고 즐거운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판매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자금을 지킨다

콘덴싱이 올랐다

1988년 대한민국 최초 콘덴싱보일러 개발

1999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환경마크 획득

2000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2년 업계 최초 콘덴싱가스보일러 미국 수출

2009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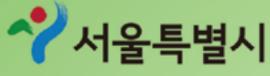
2015년 해외 콘덴싱보일러 & 온수기 1위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정동 나비엔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북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고객문의 1588-1144



건강 9구독 ♥ 행복 8팔로우

99888 종아요



서울시가 스마트워치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19~75세(1948~2004년생) 서울시민
* 서울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 모집인원** 15만 명(선착순 마감)
스마트워치 미보유자 : 10만 명 / 스마트워치 보유자 : 5만 명
(단, 갤럭시워치와 애플워치만 가능)
- 기간** 2023. 8. 28.(월) 10:00~모집 완료 시까지
- 방법** 손목닥터9988 누리집(<https://onhealth.seoul.go.kr>) 접속 신청



신청 바로가기



최태웅 감독 “우리가 대표 많이 배출해 한국배구 망치나 생각”

1세트 24-21에서 5연속 실점...대한항공전 0-3 패배에 선수 질책

남자배구 현대캐피탈의 ‘비행 공포증’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현대캐피탈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전에서 세트 점수 0-3으로 무기력하게 패해 이번 시즌 맞대결 3전 전패를 당했다.

1세트 24-21로 앞서가다가 3연속 범실 등으로 5점을 연달아 내줘 먼저 한 세트를 빼앗겼고, 그 여파로 2세트와 3세트는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현대캐피탈의 대한항공전 정규시즌 상대 전적은 2020-2021시즌 이후 3승 18패로 절대 열세다.

이번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6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듯 했지만, 다시 대한항공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경기 중 작전타임 때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질책했던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한항공전에서 생각에 잠긴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

최 감독은 “진정한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될 것 같다. 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기장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는 건 처음엔 마음이 어려서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몇 년 동안 세대교체 작업에 한창이다.

최 감독은 허수봉과 홍동선, 김명관, 김선호 등 장대성 있는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한국배구의 미래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 감독은 “이름만 거창하게 대

표팀에 간 선수들이다. 우리 선수들 대표팀에 많이 가도록 한 제가 한국 배구를 망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발전하려고 시스템부터 마인드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 선택 갈림길에 섰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최 감독이 비판하는 대상은 20대 초중반 젊은 선수다.

그는 “고참들이 우승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린 훈련과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은 ‘그냥 현대캐피탈 오면 우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강도 높은 반복성 훈련으로 선수들 괴롭히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만 인성 교육만으로는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대로면 우리 팀 출신 대표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또 실패할 것이다. 이미 훈련량은 늘렸고, 이제는 훈련 강도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 최준용 기자



취재진 질문 답하는 '골든글러브' 김하성

김하성, 올 MLB 팀 2루수 불발 시미언·올비스 선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를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받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올해 포지션별 최고 선수 격인 ‘올 MLB 팀’에는 아쉽게 뽑히지 못했다.

MLB닷컴이 17일(한국시간) 발표한 올 MLB 팀 명단을 보면, 마커스 시미언(텍사스 레인저스)과 오지 올비스(애들렌타 브레이브스)가 각각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2루수로 선정됐다.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 글러브 수상자인 김하성은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 올해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황금 장갑을 낀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와 더불어 2루수 부문 8명의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프로농구(NBA)를 본떠 MLB가 2019년 제정한 올 MLB 팀은

공격과 수비를 망라해 그해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로 팀을 꾸린다.

첫 번째 팀은 명실상부한 그해 올스타, 두 번째 팀은 각 포지션의 차점자로 구성된다. 올 MLB 팀은 온라인 팬 투표 50%와 미디어 종사자·구단 관계자·전직 선수로 꾸려진 패널의 투표 50%를 합쳐 결정된다. 역대 우리나라 선수로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올 MLB 두 번째 팀 5명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으로 뽑혔다.

프로 스포츠 사상 7억달러 시대를 개척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슈퍼스타답게 첫 번째 팀의 지명 타자와 선발 투수 두 포지션에 이름을 올렸다. 오타니는 또 양대 리그의 가장 뛰어난 타자에게 주는 2023년 헝크 에런상의 아메리칸리그 수상자로 선정됐다.

/ 강희성 기자

김길리, 쇼트트랙 월드컵 서울 대회 1,500m 금메달 석권

홈 팬들의 열띤 응원을 등에 업은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여자 1,500m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23초74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전날 1차 레이스에서도 1위에 오른 김길리는 이번 대회 여자 1,500m에 걸린 금메달 2개를 싸늘이했다. 세계랭킹 1위 김길리는 레이스 초반 맨 뒤에서 틈을 봤다.

네덜란드의 허너 데스맛이 12바퀴를 남긴 시점 갑자기 스피드를 울리며 크게 앞서 나갔으나 함께 출전한 심석희(서울시청)가 격차를 줄여 나갔고, 6바퀴를 남기고는 선두에서 레이스를 운영했다.

그 사이 김길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순위를 끌어 올렸고, 3바퀴를 남긴 시점 아웃코스를 이용해 1위로 한 번에 올라섰다.

이후 속력을 높인 김길리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역주하는 김길리

지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5위를 차지했다.

서휘민(고려대)은 준결승에서 조 2위 안에 들지 못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 양희진 기자

국제삼보연맹 공인 프로삼보리그

‘CSL 코리아’ 출범, 내년부터 대회 개최 목표

러시아 전통 무예인 삼보의 프로화를 추진하는 프로삼보리그가 한국에서 출범했다.

대한삼보협회는 “컴뱃삼보리그의 약칭인 CSL(Combat Sambo League) 코리아가 지난 16일 천안에서 출범식과 시범 경기를 열어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성천 대한삼보연맹 회장과 바실리 세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 아르카디 로텐베르그 CSL 초대 회장, 세르게이 엘리세예프 유럽삼보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삼보연맹은 “CSL은 삼보 선수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삼보연맹에 소속된 선수들의 재정적 동기부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천 대한삼보연맹 회장은 “CSL은 UFC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확신하며, 삼보를 연마해온 선수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반겼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CSL 코리아 시범경기는 한 라운드당 3분씩 총 3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한국 선수로는 김성진(64kg급)과 한운성(79kg급)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삼보연맹은 “CSL 코리아는 내년부터 2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차현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전서 이강인 소속팀 PSG 팝업



신세계백화점은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에서 이강인이 소속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팝업 매장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팝업에서는 PSG의 이번 시즌 유니폼과 공식 굿즈를 만날 수 있다.

이강인, 킬리안 음바페 등 인기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과 ‘블랙 컬렉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한다. 블랙 컬렉션은 검정색 바탕에 분홍색으로 등번호를 새겼던 2016-17시즌 서드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리유 라인이다.

/ 신영철 기자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밤에 피는 꽃' 이하늬X이종원, 공조 꽃 피운다!

선 넘고 담 넘는 이들의 찐한 케미. 1차 티저 공개!

'역시 이하늬'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밤에 피는 꽃'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내년 1월 12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 제작 베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은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심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탐내는 갓벽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이다.



'밤에 피는 꽃' 주인공 이하늬와 이종원

공개된 1차 티저에서는 낮에는 소복을 곁에 차려입고 다듬어질 줄을 하는 이하늬(조여화 역)와 밤에는 복면을 쓰고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이하늬가 교차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하늬는 많은 상대들과의 대적 끝에 이종원(박수호 역)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하늬와 그런 그녀를 만나면서 기억 속에 묻힌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종원이 아슬아슬한 공조

한 판이 펼쳐진다. 이내 칼을 빼든 이하늬는 누군가를 다시 지켜내고, 험난한 다듬어질 줄과 함께 의문의 사내들을 제압한 뒤 방방이를 내던지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혼을 쑥 빼놓는

다. 특히 수절과부인 이하늬가 흥에 취해 춤사위를 벌이는 모습은 배꼽을 잡게 만든다.

0차 티저가 이하늬의 살 떨리는 이중 생활을 보여줬다면, 1차 티저는 수절과부 이하늬의 일상과 복면 검객 이하늬의 삶을 재치 있게 그려내고 있다. 게다가 속도감 넘치는 영상미는 예비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장태유 감독의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연출력과 이샘, 정명인 작가의 탄탄한 집필력이 더해져 최상의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MBC 새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 임연희 기자



'미스트롯3' 김소연X오유진 출격! 트로트 아이돌들이 온다!

'트로트 아이돌' 김소연, 오유진이 TV CHOSUN '미스트롯3'에 등판한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3' 참가자들을 향한 열띤 호응이 심상치 않다. '미스트롯3' 실시간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응원글이 쏟아지며 팬덤이 들끓고 있는 것.

제작진은 "이번 시즌은 실력이 쟁쟁한 어린 참가자들이 대거 지원해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다"라면서 "김소연, 오유진을 비롯해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 과감히 용기를 낸 참가자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타 오디션에서 우승하거나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들도 다시 도전하는 '트로트 오디션 끝판왕'이다.

'미스트롯3'는 가장력은 물론이고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을 갖춘 72인의 참가자들이 출격한다. 무엇보다도 '미스&미스터 트롯' 사상 최초로 1라운드부터 부셔별 1대 1 서바이벌 배틀을 벌인다. 과격적이고 잔인한 룰이 도입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연을 예고한다.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 도전 자체가 트로트 가수라면 꼭 거쳐야 하는 등용문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트로트 아이돌' 김소연과 오유진의 출격이 화제다. '트로트 아이유' 김소연은 MBC '트로트의 민족' 2위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스트롯3'는 믿고 보는 MC 김성주를 필두로 초호화 마스터 군단 장윤정·김연자·진성·봄·장민호·김연우·박칼린·황보라·슈퍼주니어 은혁·이진호·빌리 츠키·알고보니 혼수상태가 함께 한다.

오유진은 KBS 2TV '트롯 전국제전' 3위 수상자로 '트로트 프린세스'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고 있다. 아쉬운 도전장을 던진 두 사람이 '미스트롯3'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세상을 쥐고 뒤집을 TV CHOSUN '미스트롯3'는 오는 21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 박정민 기자

JYP 새 일본 보이그룹은 7인조 '넥스지'



일본에서 활동할 JYP엔터테인먼트 새 보이그룹의 데뷔 멤버 7명과 팀명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 멤버 7명은 토모야, 하루, 유우키, 켄, 유우, 유우히, 세이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예선과 합숙 등 관문을 통과하며 맨스 실력, 가창력, 스타성, 성실함 등을 인정받았다.

JYP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일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후투를 통해 공개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 2 마지막 회에서 최종 데뷔 멤버와 팀명 '넥스지'(NEXZ)를 발표했다.

넥스지는 오는 18일 일본 니혼TV '데이 데이'(Day Day)에 게스트로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을 만난다.

'Next Z(Generation)'(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축약한 팀명 넥스지는 차세대를 책임질 멤버들이 모여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은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명했다.

'니지 프로젝트'는 JYP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뮤직과 손잡고 진행하는 현지 오디션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시즌 1을 통해 배출한 걸그룹 니쥬(NiziU)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티와 영원의 탑' 만장일치 호평 화제! '재미와 감동 모두 잡았다!' 강력 추천 K-애니메이션!



국내 1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연예계 셀럽들이 참석한 '도티와 영원의 탑'이 크리에이터 시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도티인 도티, 엘언니, 밍모, 코아가 현실과의 경계가 사라진 게임 세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놀라운 어드벤처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도티와 영원의 탑'이 지난 12월 8일(금)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크리에이터 시사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티와 영원의 탑'이 최초로 공개됐던 크리에이터 시사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 약 40팀이 참석해 화제를 일으켰다.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사하며 유튜브 185만, 틱톡 1,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신사장', 코믹한 콘텐츠로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파뿌리', 코미디언 출신의 143만 크리에이터 '금식왕'을 포함해 200만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유리야 놀자'와 유쾌하고 신선한 도전을 일삼는 '슈벨맨' 그리고 가족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구사하며 323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말이야와 친구들'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기에 만능 엔터테이너 하하와 가수 강남 등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셀럽들이 참석했다. 개봉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들과 셀럽들의 극찬을 받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도티와 영원의 탑'은 오는 12월 27일 개봉한다. / 유은수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unicef.or.kr

아이야, 서투른 도움이라 미안해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만난 적도 없는 먼 나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서툰 부분을 유니세프가 채워줍니다.

서투른 도움이라 유니세프가 있으니까요

unicef

02)723-8215 www.unicef.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 연락하시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343-01-0010-741 신한은행 140-001-916222 우체국 010777-01-000305 휴대전화 후원문자 보내기 #2004(한 통화 2000원)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